

나주중 3년 김지완양

세계적 화장품 브랜드 '키엘'
디자인 공모전서 1위 입선

중학교에 재학중인 10대 소녀가 세계적 화장 품 브랜드인 키엘 화장품의 용기 디자인 공모 전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물리치고 입선,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현재 나주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완(15)양.

김양이 세계적 화장 품 브랜드인 키엘의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평소 경증으로앓고 있던 '아토피' 때문이었다.

지난 7월 시험 스트레스로 심해진 아토피에 보다 효과적인 '보습제'를 찾던 김양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키엘사의 영문홈페이지에 접속, 디자인 공모 소식을 접하면서부터다.

부모님을 따라 7살 때 까지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서 생활했던 김양은 "영문으로 된 공모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양은 "키엘사의 공모전 컨셉이 화장 품 용기의 여백에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도안 삽입이었다"고 설명했다.

평소 디자인 학원 등을 다닌 적이 없었던 김양은 타고난 재능으로 학교와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키엘사의 공모 소식을 접한 뒤 김양은 곧바로 타고난 감각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창작 작업을 시작했다.

김양은 "무엇을 그려 넣을까 고민하다가 기능성 화장 품으로 유명한 키엘사의 보습제가 아토피 등의 피부 재생 능력에 뛰어난 점에 착안 '피부재생'에 맞는 이미지 컨셉이 무얼까 고심했다"고 당시를 떠 올렸다.

마침내 떠오른 이미지는 '고목나무와 녹색잎' 이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빠르게 자라는 김양의 발상은 이후 '키엘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적중했다.

특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글인 한글을 한자 한자 정성껏 삽입해 전제적인 도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도안 작업에 사용된 한글의 개수는 모두 1851개로 이는 키엘사의 설립년도를 상징했다.

이렇게 이름에 걸친 정교한 작업으로 완성된 작품은 출품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8월 중순 '1위 입선'이라는 기쁨으로 돌아왔다.

김양은 이후 키엘의 본사가 미국 뉴욕에 있는 관계로 지난 8월 중순 키엘코리아 서울지사에서 시상식과 함께 '디자인 사용 저작권 계약'까지 거미워 현재 각각의 소녀가 마침내 일약 유명 디자이너로 변신하게 됐다.

김양은 이후 유명세를 톡톡히 타고 있다. 그의 천재적 재능을 알아본 국내 디자이너들이 함께 작업하기를 원하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양은 "이같은 성과에 본인도 놀랐다"며 "장래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디자이너가 꿈인 만큼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차근차근 실력을 다져 꿈을 이뤄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전남대 윤택림 교수 FISU집행위 의무위원 선임



전남대 의과대학 윤택림 교수(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장)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하 FISU) 집행위원회에서 의무위원회(Medical Committee) 신임 위원으로 선임됐다.

의무위원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주요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의 보좌기구로 19개 분과 위원회 중 하나이다.

동·하계유니버시아드, 대학선수권대회 등 대학스포츠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도핑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감독 등 FISU의 의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독일 등 각국을 대표하는 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체육증기자 chae@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야생화

뒤로 말린 꽃잎...풀어헤친 여인네 머리꼴?

<155> 영아자



영아자는 초롱꽃 꽃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우리 나라 각처의 산골짜기 낮은 지대에서 자란다.

뒤로 말리면서 피는 영아자의 가느다란 꽃잎은 언뜻 보면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네를 닮았다.

그래서인지 그 모양을 보며 꽃말인 '광녀(狂女)'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폐지모은 돈으로 이웃에 쌀 선물한 이장님

담양 고서면 동운리 박기태씨

마을 이장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폐지를 모아 적립한 돈을 불우이웃을 위해 페척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박기태(67) 이장.

박 이장은 매일 아침 고서면사무소를 비롯해 농협 등 고서면 소재지 인근 상가를 돌며 신문지 등 폐지를 모았다.

꼬박 1년에 걸쳐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팔아 받은 돈으로 20kg들이 쌀을 구입, 최근 같은 마을에 사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폐지 모으기를 시작했다는 박 이장은 "불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 오히려 부끄럽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앞으로도 폐지 줍기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평소 웃은 일에도 앞장서서 나서는 성격탓에 마을에선 박이장



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남다르다. 특히 박이장은 삼정병을 앓고 있으으면서도 선행을 계속해 감동이 배가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kwangju.co.kr

“독도는 한국땅, 세계인들에 논리적으로 설명”



김장훈, 호사카 유지 교수와 '트루스독도' 앱 제작

가수 김장훈이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독도 관련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인 '트루스독도(truthofdokdo)'를 제작했다.

김장훈 측은 지난달 30일 "독도에 대한 논리적 무장을 강조해온 김장훈과 호사카 교수, 그가 트루스독도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해 지난주부터 안드로이드 체계 스마트폰과 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독도 전문사이트 '트루스

오브 독도 닷컴(www.truthofdokdo.com)의 한국어판, 일본어판, 영어판을 개설해 관심을 모았다.

호사카 교수는 "이 사이트들의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은 데 이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독도가 한국땅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는 일본의 디케이스에 억지 주장에 대한 여섯 가지 논리적인 반론이 담겼다"며 "내년 초까지 일본의 억지를 무력화시킬 두 가지 핵심 논리를 추가로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수시청 김성열 사이버팀장
모범 공무원 '청백봉사상'

여수시청 김성열(48) 사이버운영팀장이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가 매년 전국의 모범적인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을 수상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인사

◇조선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겸 약학대학장 이원재 ▲공과대학장 차용훈 ▲조선대학교 병원장 민영돈

전남대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센터 개소



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소장 박광성)는 최근 기능성식품·화장품 임상시험센터 개소식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우암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장학증서 수여



(재)우암문화재단(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은 최근 남부대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장학금 전달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남부대 제공>

순천 왕조2동 불우이웃에 '사랑의 김치'



순천시 왕조2동사무소는 최근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랑의 김치' 800kg과 쌀 20kg 50포대를 관내 14개 경로당과 불우이웃 40여 세대에 전달했다.

농어촌공 전남본부 봉사회, 어린이재단에 성금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어직원봉사단은 지난 2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열린 '2011 후원자·결연이동 만남의 날 행사'에서 바자회로 모금한 482만8640원 전액을 어린이 재단에 전달했다.

호남대 영어연극제 '오셀로' 개막



호남대 영어연극과(학과장 최병현)의 제26회 영어연극제 '오셀로'가 최근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개막됐다. 이번 공연은 김경교수가 구성한 학생극단 '광주셰익스피어컴퍼니'에 의해 마련됐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선주(뉴 자모여성의원)·이성숙씨 아들 우영균 박수근·정순자씨의 딸 효성양=3일(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

▲김제창(삼성증권 FC)·김영순씨 장남 진준수·백경숙씨 장녀 지혜양=4일(일) 오후 1시 10분 조선컨벤션웨딩홀 3층 컨벤션홀.

▲임영재·이현숙씨 장남 지준군 김삼선(광주북부서 교통사고 조사계장)·이명숙씨 장녀 희원양=10일(토)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누벨바그씨작.

▲전승현(전남도 건설방재국장)·강성옥씨 차남 응(금융공학연구소) 군 김기령(서문여고)·우경안씨 차

동창·동문회

▲광주 석산고 1회 동창회(회장 김윤탁)=1일(목) 오후 7시 증도횟집(봉선동 롯데마트 3층) 010-3644-5705.

▲제광보성중학교 동문회 5차 동문총회=1일(목) 오후 6시 30분 그랑시아웨딩타워 5층(운암동).

▲광주 광덕고 2회 동창회(회장 김영권) 송년회 및 자람스런동문회상=7일(수) 오후 6시 30분 갤러리아 웨딩홀(광주신세계 백화점 건너편) 062-369-4900.

▲광주상고 22회 동창회(회장 장봉조)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2일(금) 오후 7시 쌍촌동 한국농어촌공사 빌딩 3층 웨딩홀 010-3646-1373.

종친회

▲안동권씨 송년의 밤=3일(토) 오후 6시 영산강 웨딩홀(쌍촌동) 010-3646-1373.

알림

▲제61주 학평양민집단학살희생자 합동위령제봉행(회장 정근우)=6일(화) 오전 11시 합평 월야초등학교강당 011-615-3009.

부음

▲서울대학교 광주·전남 총동창회=제14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후보자(자세한 사항은 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062-600-4351.

故 박정화

故 정길복

故 오승호

故 김당업

故 김여순

故 김경호

故 김기봉

故 김기봉